

생태학적 가족복지모형을 적용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심리적 복지*

Psychological Wellbeing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based on Bioecological Family Welfare Model*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전 효 정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Dong-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Jeon, Hyo Jeong

◀ 목 차 ▶

- | | |
|--------------|---------------|
| I. 서론 및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s applied to the bioecological family life welfare model, concerning individual attributes, family backgrounds, and family process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s. Based on Bronfenbrenner's bioecological perspective, the "bioecological family welfare model", which includes person (individual attributes), context (family background), process (mechanism - family process), and time (the family life cycles), was applied as a research paradigm for this study. The sample for the questionnaire study comprised for 900 families, considering the family life cycle in Busan and the Kyungnam area. The families were categorized into 6 family life cycles based on Duvall and Hill's family life cycle. For the final analysis, 628 families were used.

According to the path analysis results, the length of commitment before marriage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tress coping ability. Several individual attributes and family backgrounds such as age, length of marriage, family life cycle,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ability had significant effects on marital adjustment. The family life cycle and age were significant variables on family function. The significant variabl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monthly income, length of commitment before marriage, stress coping ability and marital adjustment. The regression model showed that the variables of the individual attributes, context and family process accounted for 51%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suggested research model was significant and effective to explain the mechanism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dividual attributes and family context have an impact on stress coping, marital adjustment, and family function, which in turn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주제어(Key Words):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생태학적 가족복지모형(Bioecological Family Life Welfare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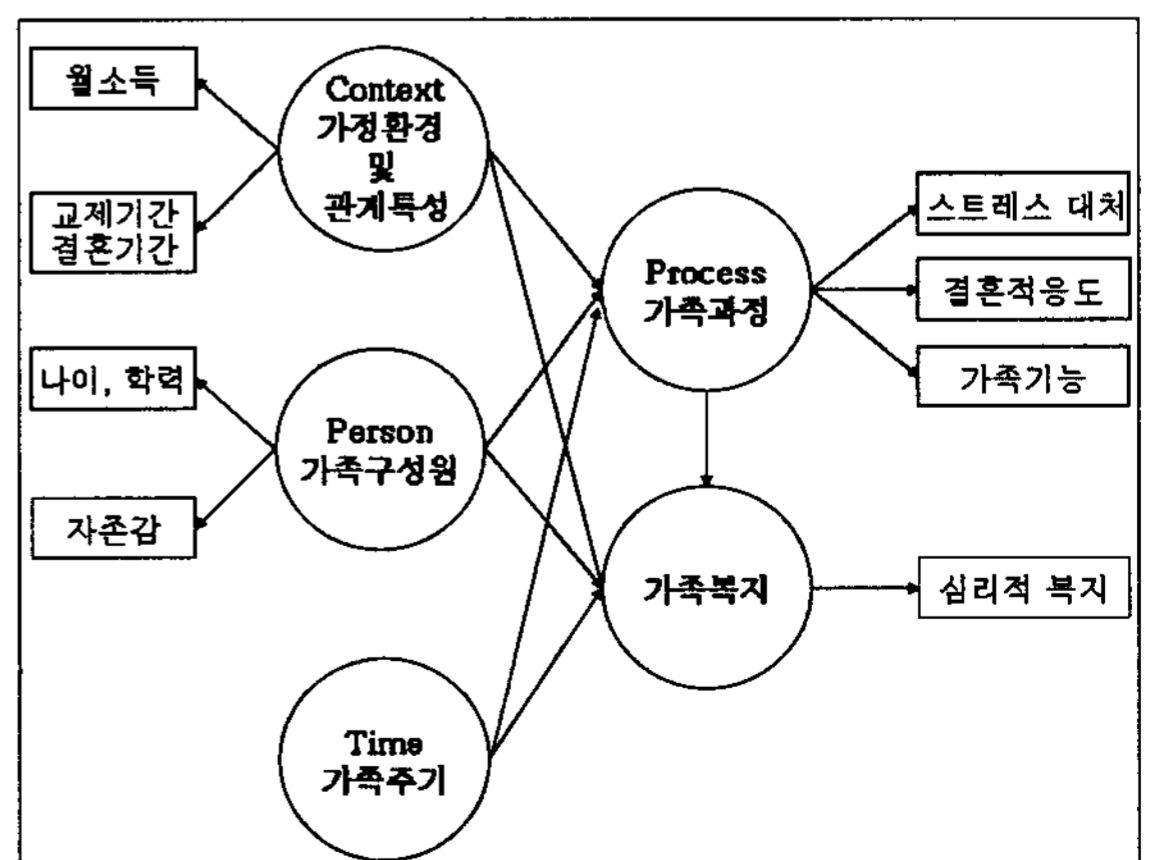
I 서론 및 문제제기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부부관계 등 다양한 대인관계의 특성과 질이 정서적 안정, 생활만족도, 사회적 적응 등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Kirkpatrick & Davis, 1994; 전효정, 1996, 2000). 한편 대인관계와 신체적 건강을 다룬 연구에 의하면,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모든 연령대의 기혼남녀가 독신이나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혼은 우리의 심리적 안녕 뿐 아니라 건강에도 유익하다. 결혼 상태에 따른 건강을 비교하면, 기혼자들이 가장 건강하고, 독신, 사별, 이혼의 순이었으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평균 수명이 10년은 길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Verbrugge, 1979). 가족관계가 주는 정신적 지지는 단지 심리적 안녕과 행복감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행복, 나아가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도 건강한 가정환경과 가족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화에 따른 도시화와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로 사회의 가치와 구조가 변화하고, 이에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이혼율의 급등으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급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문제는 주로 생계, 자녀교육과 관련한 역할과 기능의 결손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기능적 문제였으나, 이제는 학대되거나 방치되는 아동, 입시지옥에 시달리며 방황하는 십대, 증가하는 이혼율과 카드빚으로 자살에 이르는 성인 세대, 그리고 소외된 노인세대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결손 및 가치관 혼돈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가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별 가족이 해결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하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혼은 단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와해로 인한 이혼고아가 늘고 있으며 결손 가정 아동의 부적응은 청소년 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높으며, 이는 곧 사회의 문제로 확산된다.

가정의 잠재적 강점을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가족복지의 정책과 서비스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지지와 중재 그리고 예방교육이 요구된다. 현대 가족에 내재한 아동 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가족의 발달단계와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하게 예방하거나 중재하고, 나아가 가족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절실하다. 우선 이를 위하여 가족복지 증진의 기초가 될 이론적 모형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 가족의 물리적,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변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가족복지에 관련 있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가족의 기능과 복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가족복지 모형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복지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은 학문적 기여뿐 아니라, 국가의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입안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의 생활주기를 고려하여 가족의 물리적,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복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밝히고, 그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복지 연구의 이론적 모형으로 생태학적 가족복지모형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심리적 복지의 모든 요인들 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가족의 심리적 안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주요한 변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Bronfenbrenner와 Morris(1989)가 제시한 Person-Process-Context-Time(PPCT) 모형을 가족에 적용하여 가족복지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가족의 심리적 복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최적 모형으로 가족 구성원의 특성(Person), 가정환경 및 관계특성(Context)과 가족생활주기(Time)가 가족과정(Process)을 거쳐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을 연구의 틀로 사용한다. 즉, 가족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과 그 영향의 경로를 파악하여, 현대 한국 가족의 복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6집단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림 1에 제시된 생태학적 가족복지 이론적 모형을 기본 틀로 사용하여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그림 1〉 생태학적 가족복지 이론적 모형
(The Bioecological Family Life Welfare Model)

변인과 이들 변인간의 상호 역동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특성(Person)으로는 나이와 학력, 그리고 심리적 특성으로 자존감을 고려하였다. 환경(Context)으로 가정의 월소득과 결혼전교제기간 및 결혼기간을 고려하였으며, 가족과정(Process)으로 가족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결혼적응도 및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가족생활주기(Time)를 고려하여 이들 변수들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실시하였다.

- <연구문제 1> 가족생활주기별로 가족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가족생활주기별로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가족의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형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복지 관점 및 연구모형

1) 가족발달적 관점

미국에서는 Hill과 그의 동료들(1957) 그리고 Nye와 Berardo(1966)에 의하여 가족발달적 접근은 제도적, 상호작용론적, 구조기능론적, 상황적 접근과 함께 가족연구의 주된 관점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Hollman과 Burr(1980)는 발달적 접근을 주요한 이론에서 제외시켰으며, 그 후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체계이론, 교환이론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족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발달적 접근은 소강상태를 나타내고 있다(Thomas & Wilcox, 1987). 반면, 일본에서는 가족발달적 접근이 시간차원에 따라 가족의 변화양상을 포착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주는 유효한 접근법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가족발달적 접근을 개인 생애의 역사·사회맥락적 경험을 포함시킨 생애경로(life-course)의 관점으로 변화 발전시켜 지속적인 연구를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가족발달적 접근은 미국에서보다는 오히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접근법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가족주기분류는 Duvall(1977)의 첫 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 구분한 8단계 가족생활주기이다. 가족발달적 접근 연구로는 한국사회에 적용시키는 데에 우선 필요한 문화적인 여과장치 즉, 한국가족의 주기 자체를 고찰하여 연구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과, 실제로 부부역할, 의사결정,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부부갈

등, 사회관계망 등을 밝히는 데에 가족주기를 주요 변수로 하여 고찰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가족발달적 접근은 한국에서도 아직 이론화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하나의 방법론 또는 접근시각의 수준이며 앞으로 다양한 가족에 적용할 수 있는 가족생활주기와 생애경로적 접근으로 더 정교한 연구의 축적이 요청된다.

2) 생태학적 가족복지 이론적 모형

Bronfenbrenner(1979)는 인간발달의 생태학을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인간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간 일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조절 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 정의하였다. 원래 생태학은 생물학적 유기체와 그 주변의 사회물리적 환경 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상호의존적인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생물학자인 Germain과 Gitterman(1987)은 유기체의 적응이 환경과의 적합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능동적 행동의 결과라고 하였다. 인간도 다른 유기체의 생물학적 적응과 마찬가지로 ‘인접과정(Proximal process)’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 큰 생태계에 적응한다. 이러한 과정을 조망해주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모형은 인간과 동시 작동되는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적-통합적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생태학적 접근은 기존의 환경요인(성별, 종교, 사회 계층, 가족 구조, 출생 순위, 거주 지역, 결혼 여부, 부모 취업 여부, 부모 재혼 횟수 등)만을 고려하는 연구이거나, 유기체의 특성 요인(개인의 현재와 과거의 성격 특성의 인과관계 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의 접근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가족복지의 실행모델로서 환경 또는 유기체의 특성만을 보는 연구접근법은 한계가 있다. 생태학 모형은 인간·환경맥락 그리고 과정까지 포함하며, 개인의 상황적 맥락을 포착할 수 있는 생태학적 소영역(Ecological Niche: 개인이 지역 사회에서 점유하는 공간이나 지위)을 발견하는 데 주력한다. 이 모형은 인간과 환경 간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을 규명하여 그 둘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효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은 가족복지에 관련된 복잡한 쟁점들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유기체와 환경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호혜적인 적응에 초점을 둘 뿐 아니라, 하나의 체계 안에 더 큰 체계가 포개어 진 겹 구조로 상호 작용적 구조로 형상화되어 있어, 유기체가 직접 경험하는 현실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상호의존적인 체계들 간의 상호 작용임을 보여준다(Bronfenbrenner, 1976). 또한 생태학적 접근은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의 질과 그 질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쟁점으로 삼고 있으며, 가족 및 그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데 있어 정치적, 경제

적, 사회 인구학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들은 결국 환경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개인과 가족의 발달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윤종희, 2001 재인용).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접근법을 토대로 가족스트레스이론과 가족체계 모델을 고려하여 생태적 가족복지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여 이를 가족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의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Bronfenbrenner가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위하여 꼭 고려되어야 한다는 변인들을 포함한 Person-Process-Context-Time (PPCT)모형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적 메커니즘과 발달의 시기를 고려하는 것으로(Bronfenbrenner & Morris, 1998), 이를 가족학 영역에 적용하고 확장하여 유기체의 발달과 더불어 가족의 생활주기의 특성과 다양한 환경(미시적, 거시적 환경)을 동시에 포괄하여 생태학적 가족복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가족복지 관련 연구에 있어서 유용한 연구 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전효정, 2003).

2. 가족기능과 심리적 복지

가족의 기능과 체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가족 체계에 대한 Circumplex model에서 Olson, Russel과 Sprenkle(1979)은 가족을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의 2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가족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들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로 가족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외부환경에 대하여 개방적인지 아니면 소외되어 있는지를 뜻한다. 가족 적응성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Minuchin(1974)은 스트레스가 종종 가족 내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야기하게 되는데, 건강한 가족은 스트레스에 더 적응적이고 융통성 있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균형 잡힌 가족체계 내에서 작용할 때 문제가 더 적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Circumplex Model에 입각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균형 잡힌 응집성과 적응성을 가진 가족이 극단적인 가족보다 더 적절한 기능을 보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보이며(민혜경, 1990), 응집성이 높은 가족이 부모자녀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적었으며(전귀연, 최보가, 1993),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친척과 이웃의 도움을 받는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정문자, 정현숙, 1994).

개인의 심리적 복지란 가정 및 주위환경 등 물리적 환경과 대인 관계 등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의

미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가족복지의 목표이기도 하다. 가족의 응집성과 심리적 복지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높게 지각한 경우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정문자, 정현숙, 1994; 최규련, 1998), 자아존중감이 높으며(전귀연, 최보가, 1995), 우울정도가 낮았다(박금희, 1986; 전귀연, 1996; 최규련, 1999).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Duvall의 정의와 최근 Hill의 재정의를 바탕으로 첫 자녀의 연령에 따라 여섯 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신혼기(자녀 없음), 2단계는 유아를 둔 가족(첫 자녀가 6세 이하), 3단계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첫 자녀 7세-12세), 4단계는 청소년을 둔 가족(첫 자녀 13세-18세), 5단계는 초기 청년기 자녀가족(첫 자녀 19세-독립이전), 6단계는 노년기 가족(자녀의 결혼 또는 독립)으로 나누었다. 가족생활주기 6단계로 각 단계를 고려하여 총 900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가족복지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각 가족을 대표하여 남편(191명) 또는 부인(437명)이 하였다. 주요 변인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는 628 가족이 사용되었다.

2. 연구 도구

설문지는 가족의 유형과 특성, 가족구성원 인구통계학적 정보, 스트레스 대처, 가족기능, 결혼 적응과 심리적 복지 등에 관한 도구들과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 변인으로 자존감은 Coopersmith(1967)의 Self Esteem Inventory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을 합쳐 만든 김경연(1987)의 도구를 수정하여 총 3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McCubbin, Olson, Larson(1982)의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Scale(F-cope)를 정문자와 정현숙(1994)이 개정한 문항들을 각 가족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α 는 .90이었다. 가족기능의 측정은 BLOOM(1985)이 고안한 자기보고식 가족기능 측정도구를 박선영(1998)이 번역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기존의 가족기능 측정도구들인 FES(Family Environment Scale), FCQS (Family-Concept Q Sort), FACES(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그리고 FAM(Family Assessment Measure)을 통합·발전시켜 만든 새로운 가족기능 측정도구이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본조사

용 척도는 응집성, 갈등, 가족사회성, 그리고 민주적 가족유형의 네 요인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의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응집성이 .80, 갈등이 .76, 가족사회성이 .72, 그리고 민주적 가족유형이 .78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결혼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panier(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DAS)를 Jeon(1991)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치관 일치, 애정 표현, 부부응집성, 결혼만족의 4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는 각각 .83, .78, .85, .92로 나타났다. 심리적 복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효정(2003)이 Olson과 Barnes(1982)의 삶의 질 척도를 바탕으로 한국가족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전반적 심리적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제작한 도구로 5점 척도의 13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2이었다.

3. 연구 절차

가족생활주기 6단계로 각 단계를 고려하여 각 단계별로 150가족을 선정하였으며, 2005년 6월에서 9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후속연구의 편의성을 위하여 부산 경남 지역으로 한정하고,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각 유형의 가족을 표집하기 위하여 지역별 예식장(1단계), 소아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2단계), 초등학교(3단계), 중·고등학교(4단계), 대학교 및 직장(5단계)을 통하여 각 주기별로 150 가족을 추천 받았으며, 가족생활 주기 6 단계는 앞 단계(1-5단계)에 참여한 가족의 원가족(family of origin) 중에서 표집하였다. 이는 표집의 용이성뿐 아니라 현재 가족과 원가족을 동시에 포함하여 가족 특성의 세대전이나 보다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가능하다. 조사는 연구보조원들이 전화로 설문조사 참여의향을 확인한 후 총 900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가족복지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회송봉투와 함께 발송하였으며,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각 가족을 대표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하도록 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700부로 회수율은 78%였으며, 주요한 변인이 누락된 72부를 제외하고 628가족(남편 응답 191부, 부인응답 437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첫 번째 연구문제인 각 가족생활주기별로 가족특성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변인별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주기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각 가족생활주기별로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심리적 복지를 설명하는 최적모형 제시를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 가족의 특성

연구대상가족(N=628)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가족의 연령분포는 남편은 24에서 81세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연령은 44.27세였으며, 아내는 22세에서 72세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평균연령은 41.64세였다. 가족 유형은 핵가족이 82.4%로 대부분이었으며, 확대가족이 14.2%,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 3.4%였다. 학력은 남편의 경우는 대졸이 57.6%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 32.2%로 고졸이상이 대부분이었다. 아내의 경우도 대졸이 53.6%로 가장 높고 고졸이 33.7%로 대부분이 고졸이상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남편은 회사원, 공무원 등이 37.2%, 자영업이 25.8%로 높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44.4%였고, 다음 회사원, 공무원 등이 20.5%로 높았으며, 50%가량이 맞벌이 가족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에서 1700만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이 335만원으로 중산층 집단이 대부분이었다. 결혼 전 교제기간은 1달에서 10년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21.30개월이었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특성의 차이검증을 위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존감, 가족과정 변인인 스트레스대처, 결혼적응도, 가족기능, 그리고 심리적 복지에 있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 각 가족생활주기의 비교를 위한 Scheffe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심리적 특성 변인으로 자존감은 1단계 신혼기에 다른 주기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2, 3, 4단계는 각각 5, 6단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과정 변인으로 스트레스대처 능력은 1 단계가 6단계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신혼기가 노년기 가족에 비해 스트레스대처 능력이 높다고 하겠다. 결혼적응도는 신혼기에 가장 높고 2, 3단계에 낮아졌다가 4단계에 증가하였다가 5단계에서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신혼기(1단계)가 다른 단계들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기능은 신혼기에 가장 높고 다른 단계들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사후검증에서 각 단계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긍정적 가족특성이 낮아지는 추세로 각 단계별로 적합한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결혼적응도의 경우 고적적인 U자형 곡선이 나타나지 않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감소하는 직선형의 경향을 보였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U곡선형으로 달라진다는 것은 고전적인 설명으로 신혼기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첫 자녀의 나이가 학령기 아동이거나 청소년기일 때 가장 낮고 노년기가 되면 다시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데 부적 직선형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인구사회학적 특징/통계값		평균(표준편차)	빈도(%)
연령	남	44.27(11.09)	191(30.4)
	여	41.64(10.63)	437(69.6)
가족유형	핵가족	부부	124(19.8)
		부부+자녀	393(62.6)
	확대가족		90(14.2)
	한부모가족		21(3.4)
남편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26(4.3)
	고졸		203(32.3)
	대졸		362(57.6)
	대학원이상		37(5.8)
아내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64(10.1)
	고졸		211(33.7)
	대졸		336(53.6)
	대학원이상		17(2.6)
남편의 직업	기업주, 고위공무원		23(3.7)
	전문직		76(12.0)
	회사원, 공무원, 교사		234(37.2)
	사무직		36(5.8)
	자영업		162(25.8)
	생산감독, 서비스직		49(7.8)
	일일노동, 단순노무		17(2.6)
	무직·실직		16(2.6)
	기타		15(2.4)
아내의 직업	기업주, 고위공무원		4(0.6)
	전문직		27(4.2)
	회사원, 공무원, 교사		131(20.5)
	사무직		31(4.8)
	자영업		55(8.7)
	생산감독, 서비스직		79(12.6)
	일일노동, 단순노무		15(2.3)
	무직(전업주부)		279(44.4)
기타		12(1.9)	
월수입	단위(만원)	335.29(164.12)	
결혼 전 교제기간	단위(개월)	21.30(17.53)	
가족 생활주기	1		92(14.6)
	2		123(19.6)
	3		78(12.5)
	4		79(12.6)
	5		119(18.9)
	6		137(21.8)

이 보고되거나 혹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 주기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어느 정도로 유용한가에 관한 것은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한국부인과 미국부인들의 결혼만족도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측정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부인들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났다(윤경자, 2002). 즉, 무자녀단계인 신혼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될수록 결혼만족도 수준은 점차 낮아지다가 노년기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부적 직선형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도 이와 같이 부적 직선형의 경향을 지지하며, 가족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가족생활주기가 결혼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종변인인 심리적 복지도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단계가 가장 높고 2, 3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낮아지다가 4단계에서 다시 높아졌다가 5, 6단계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1, 4단계가 5, 6단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즉, 신혼기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이 성인 자녀와 노년기 가족에 비해 심리적 복지가 높다고 하겠다. 이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이 노부모 부양과 청소년 자녀교육으로 이중적 스트레스를 갖는다는 일반적 논의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2. 가족생활주기별 심리적 복지의 예측 요인

각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각 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변인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 심리적 복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혼기 가족의 심리적 복지를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은 결혼적응도($\beta=2.42, p<.05$)와 가족기능($\beta=1.19, p<.05$)으로 이들 변수들은 심리적 복지의 전체 변량의 89%의 설명력을 갖는다($F=11.66, p<.01$). 결혼적응도가 높고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신혼기 가족의 경우 결혼적응도가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유아를 둔 가족의 경우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은 아내나이($\beta=-2.49, p<.05$), 스트레스 대처능력($\beta=.246, p<.05$)과 결혼적응도($\beta=.340, p<.05$)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전체 변량의 37%의 설명력을 갖는다. 즉, 아내의 나이가 많을수록 심리적 복지가 낮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가족과정요인 중 결혼적응도가 심리적 복지의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은 월소득($\beta=.390, p<.01$)과 결혼전교제기간($\beta=.474, p<.01$)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전교제

〈표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특성

가족특성		생활주기							
		1	2	3	4	5	6	F	
자존감	평균	40.22 ^a	37.62 ^b	38.52 ^b	37.51 ^b	36.60 ^c	35.47 ^c	10.89 ^{**}	
	표준편차	3.11	5.14	5.69	5.98	5.01	5.24		
가족과정	스트레스대처	평균	26.76 ^a	25.74 ^{ab}	26.57 ^{ab}	26.58 ^{ab}	25.72 ^{ab}	25.96 ^c	3.14 ^{**}
		표준편차	2.53	4.26	3.87	4.44	3.49	3.85	
	결혼적응도	평균	162.30 ^a	133.90 ^b	134.04 ^b	137.32 ^b	135.17 ^b	135.43 ^b	41.90 ^{**}
		표준편차	8.39	17.85	17.80	17.52	17.69	17.50	
	가족기능	평균	63.27	58.02	58.57	59.95	59.61	58.92	3.09 [*]
		표준편차	4.52	6.54	7.71	7.24	5.74	5.98	
심리적 복지	평균	50.18 ^a	46.95 ^{ab}	47.52 ^{ab}	48.97 ^a	46.52 ^b	45.54 ^b	4.01 ^{**}	
	표준편차	5.83	7.21	7.25	7.92	8.53	6.55		

* $p < .05$ ** $p < .01$ 알파벳 철자가 다른 것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임.

〈표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심리적 복지 예측요인

독립변인	가족생활주기											
	1		2		3		4		5		6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남편나이	-1.87	-.80	-.006	-.004	-.076	-.037	-.167	-.100	-.358	-.149	-.743	-.570 [*]
아내나이	1.91	.96	-.414	-.249 [*]	.040	.018	.664	.321	.413	.161	-.827	-.680 ^{**}
남편학력	-3.70	-.52	-.458	-.056	-.579	-.079	1.308	.158	.720	.086	-.259	-.042
아내학력	1.01	.16	.014	.002	-.411	-.057	.990	.122	.339	.038	.535	.079
월평균소득	-.01	-.04	.005	.084	.026	.390 ^{**}	-.007	-.109	.004	.093	-.001	-.019
결혼전교제기간	.17	.354	-.014	.030	.242	.474 ^{**}	.089	.210 [*]	.121	.254 ^{**}	-.058	-.080
결혼기간	-2.21	-.52	-1.047	-.067	-.019	-.002	1.254	.082	-.228	-.016	1.049	.130
자존감	.11	.01	.276	.214	.130	.101	-.289	-.212	.303	.180 [*]	.217	.173
스트레스대처	.68	.59	.391	.246 [*]	.086	.044	.972	.526 ^{**}	-.117	-.048	.742	.434 ^{**}
결혼적응도	1.13	2.42 [*]	.087	.340 [*]	-.006	-.014	.118	.254	.199	.414 ^{**}	.024	.063
가족기능	1.22	1.19 [*]	.095	.051	-.126	-.127	-.284	-.260	.159	.107	-.005	-.005
상수	18.21		27.65		42.24		1.56		-7.953		16.650	
R ²	.89		.37		.52		.42		.515		.436	
F	11.66 ^{**}		4.21 ^{**}		5.49 ^{**}		4.03 ^{**}		10.058 ^{**}		7.322 ^{**}	

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복지도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들 가족의 경우 1, 2단계와는 달리 가족과정 변인은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가정환경 변인인 월소득과 결혼전교제기간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둔 가족의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은 결혼전교제기간($\beta = .210, p < .05$)과 스트레스 대처능력($\beta = .526, p < .01$)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전교제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도 높아진다고 하겠다.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가족과정 중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심리적 복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이라 하겠다.

성인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은 결혼전교제기간($\beta = .254, p < .01$), 자존감($\beta = .180, p < .05$)과 결혼적응도($\beta = .414, p < .01$)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전체변량의 52%의 설명력이 있다. 즉, 결혼전교제기간이 길수록, 자존감과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도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들 가족의 경우 가족과정 중 결혼적응도가 심리적 복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라 하겠다.

〈표 4〉 가족의 다양한 특성 간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남편나이	1												
2. 아내나이	.979**	1											
3. 남편학력	-.428*	-.434*	1										
4. 아내학력	-.516**	-.515*	.802**	1									
5. 월평균소득	.067**	.064**	.340**	.239**	1								
6. 결혼전교제기간	-.368**	-.353**	.332**	.363**	.055	1							
7. 결혼기간	.325**	.320**	-.234**	-.276**	-.014	-.285**	1						
8. 가족생활주기	.915**	.917**	-.407**	-.504**	.148**	-.369**	.350**	1					
9. 자존감	-.256**	-.252**	.297**	.341**	.100*	.194**	-.194**	-.260**	1				
10. 스트레스 대처	-.137**	-.135**	.238**	.251**	.160**	.200**	-.102*	-.112**	.596**	1			
11. 결혼적응도	-.290**	-.268**	.237**	.303**	.094*	.226**	-.324**	-.296**	.520**	.514**	1		
12. 가족기능	.021	.011	.116**	.152**	.113*	.108*	-.005	.032	.525**	.560**	.605**	1	
13. 심리적 복지	-.149*	-.150**	.230**	.243**	.242**	.258**	-.111	-.094*	.368**	.427**	.433**	.311**	1

*p<.05 **p<.01

노년기 가족의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은 나이(남편 : $\beta = -.570, p < .05$; 아내 : $\beta = -.680, p < .01$)와 스트레스 대처능력($\beta = .434, p < .0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전체 변량의 52%의 설명력을 갖는다. 즉, 노년기 가족의 경우는 나이가 적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도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요약하면, 신혼기, 유아를 둔 가족, 그리고 성인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는 결혼적응도가 가장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는 스트레스대처가 가장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가족의 경우는 나이가 가장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신혼기와 유아를 둔 가족의 경우는 결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아직 부부 중심의 젊은 가족으로 결혼적응도가 상대적으로 심리적 복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학령기 아동을 둔 가족의 경우는 자녀가 유아기를 지나면서 결혼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7 years itch)로 결혼전교제기간이 가장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결혼전교제기간은 배우자 선택의 여과과정 기간으로 충분한 교제기간을 거쳐 서로 맞지 않는 커플은 미리 걸러지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둔 가족의 경우는 중년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로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노년기 가족의 경우는 연령층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신체적, 환경적 차이가 현저함으로 나이가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3. 생태학적 가족복지 모형에 따른 가족의 심리적 복지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다양한 특성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표 3), 남편과 아내의 나이와 학력은 각각 정적상관이 매우 높았으며, 학력과 나이는 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동질혼의 경향을 지지하고 젊은 부부들의 학력이 높은 시대적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나이와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평균소득이 높아졌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전교제기간이 짧고, 학력이 높을수록 교제기간이 유의하게 길어진다고 하겠다. 결혼기간이 학력과 결혼전교제기간과 유의한 역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젊은 부부들이 학력이 높고 연애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결혼전교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유사하게 가족생활주기도 나이, 월평균소득 및 결혼기간과는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학력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자존감의 경우 나이 및 결혼기간, 가족생활주기와는 부적상관을 학력 및 소득, 그리고 결혼전교제기간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경우 나이, 결혼기간, 그리고 가족생활주기와 부적상관을 학력, 소득, 결혼전교제기간, 그리고 자존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결혼적응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나이, 결혼기간, 가족생활주기와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학력, 소득, 결혼전교제기간, 자존감과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가족기능의 경우도 학력, 소득, 결혼전교제기간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그리고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복지는 나이 및 가족생활주기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학력, 소득, 결혼전교제기간, 자존감, 스트레스대처, 결혼적응도 및 가족기능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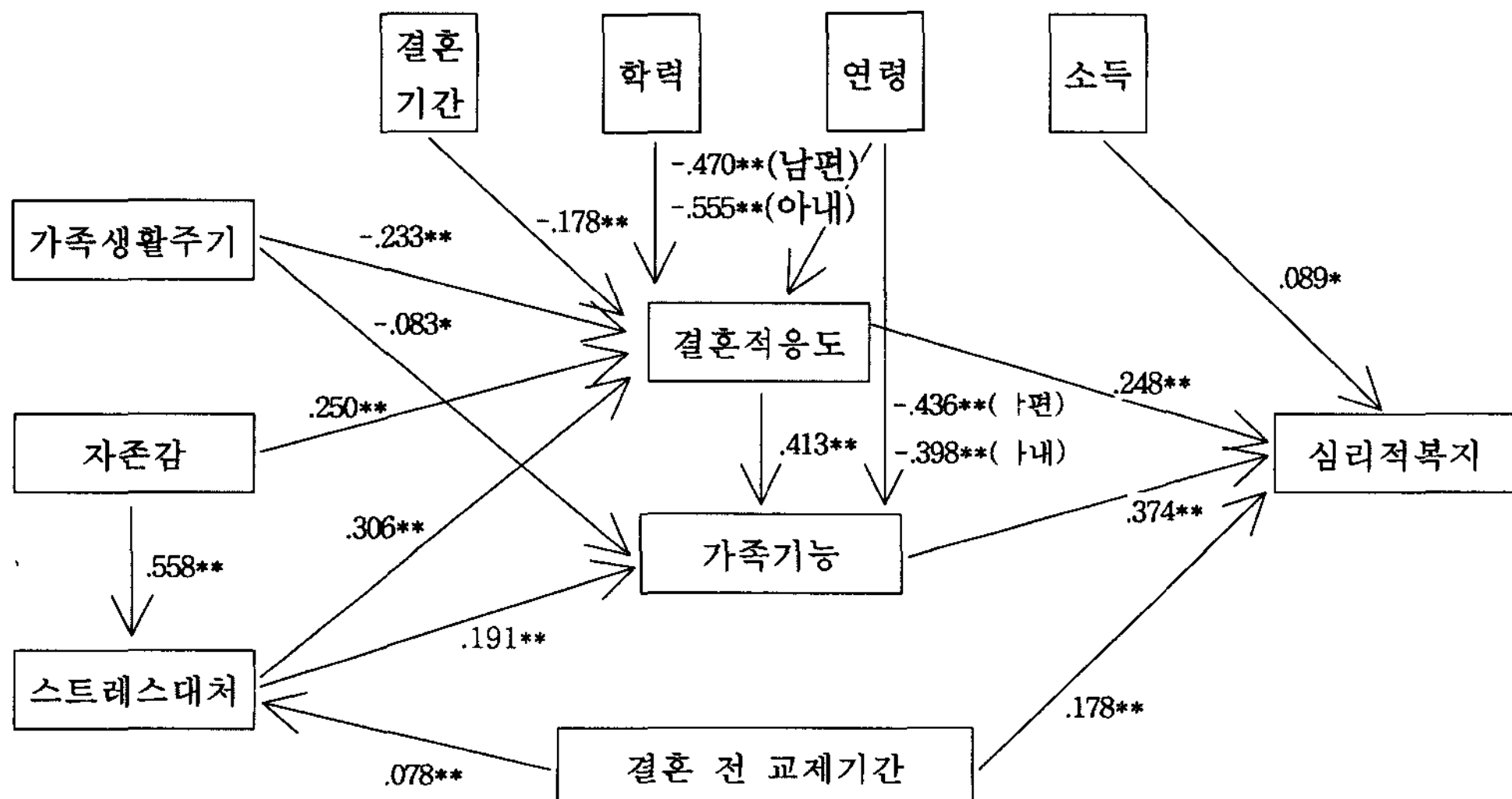
〈표 5〉 경로분석을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스트레스대처		결혼적응도		가족기능		심리적 복지	
	B	β	B	β	B	β	B	β	B	β
남편나이	-.010	-.030	-.852	-.470**	-.300	-.436**	.038	.047		
아내나이	.000	.001	-1.022	-.555**	-.272	-.398*	-.188	-.232		
남편학력	.072	.020	-1.661	-.091	-.250	-.041	.206	.029		
아내학력	.108	.031	1.401	.080	.361	.060	-.023	-.003		
월평균소득	.001	.063	.007	.062	-.003	-.080	.004	.089*		
결혼전교제기간	.017	.078*	-.006	-.005	.012	.028	.086	.178**		
결혼기간	-.020	-.004	-4.762	-.178**	.521	.053	.091	.008		
가족생활주기	.241	.115	-2.515	-.233**	-.308	-.083*	.639	.128		
자존감	.399	.558**	.917	.250**	.255	.214**	.112	.081		
스트레스대처			1.568	.306**	.313	.191**	.370	.192**		
결혼적응도					.152	.413**	.106	.248**		
가족기능							.451	.374**		
상수		9.00		77.47		17.02		18.83		
R ²		.345		.408		.464		.511		
F		33.33**		38.69**		37.13**		17.37**		

위에서 제시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은 결혼전교제기간($\beta=.078, p<.05$)과 자존감($\beta=.558, p<.0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5%였다. 즉, 결혼전교제기간이 길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다고 하겠다. 결혼적응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은 나이, 결혼기간,

가족생활주기, 자존감,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능력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beta=-.470, p<.01$)과 아내나이($\beta=-.555, p<.01$)가 작을수록, 결혼기간이 짧을수록($\beta=-.178, p<.01$), 가족생활주기가 낮을수록($\beta=-.233, p<.01$), 자존감($\beta=.250, p<.01$)과 스트레스 대처능력($\beta=.306, p<.01$)이 높을수록 결혼적응도가



〈그림 2〉 심리적 복지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

〈표 6〉 심리적 복지 관련 변인의 직접·간접 효과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종속변인	
개인특성	남편연령 (아내연령)				스트레스대처	
			-.47(-.56)			결혼적응도
			-.44(-.40)	-.19(-.23)	-.63(-.63)	가족기능
				-.35(-.38)	-.35(-.38)	심리적 복지
	남편학력 (아내학력)		-	-	-	스트레스대처
			-	-	-	결혼적응도
			-	-	-	가족기능
			-	-	-	심리적 복지
	자존감		.56	-	.56	스트레스대처
			.25	.17	.42	결혼적응도
			-	.21	.21	가족기능
			-	.18	.18	심리적 복지
	가정환경	월소득 결혼적응도				스트레스대처
						가족기능
				.09		.09
		결혼전교제기간		.08		.08
				.02	.02	결혼적응도
				.03	.03	가족기능
			.18	.02	.20	심리적 복지
결혼기간						스트레스대처
			-.18		-.18	결혼적응도
				-.07	-.07	가족기능
				-.08	-.08	심리적 복지
가족과정		스트레스대처				스트레스대처
			.31		.31	결혼적응도
			.19	.13	.32	가족기능
				.16	.16	심리적 복지
	결혼적응					스트레스대처
						결혼적응도
			.41		.41	가족기능
			.25	.15	.40	심리적 복지
	가족기능					스트레스대처
						결혼적응도
						가족기능
			.37		.37	심리적 복지
가족생활주기					스트레스대처	
		-.23		-.23	결혼적응도	
		-.08	-.10	-.18	가족기능	
			-.13	-.13	심리적 복지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41%였다. 가족기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은 나이, 가족생활주기, 자존감, 스트레스대처와 결혼적응도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아내의 나이가 많을수록($\beta = -.436, p < .01$; $\beta = -.398, p < .01$) 그리고 가족생활주기가 높을수록($\beta = -.083, p < .01$) 가족기능이 낮아지는 반면, 자존감($\beta = .214, p < .01$), 스트레스 대처능력($\beta = .191, p < .01$), 그리고 결혼적응도($\beta = .413, p < .01$)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46%였다. 최종 변인인 심리적 복지를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은 월평균소득과 결혼전교제기간, 스트레스대처능력과 결혼적응도로 나타났다. 전체 변수들이 전체 변량의 51%의 설명력을 갖는다. 즉, 소득이 높고($\beta = .089, p < .05$) 결혼전교제기간이 길고($\beta = .178, p < .01$), 스트레스대처능력($\beta = .192, p < .01$), 결혼적응도($\beta = .248, p < .01$), 그리고 가족기능($\beta = .378, p < .01$)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경로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정리한 <표 5>에 의하면, 심리적 복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 가족기능이 .37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다음 결혼적응도, 결혼전교제기간과 소득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전체효과를 보면 결혼적응도가 심리적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이 있으며 다음으로 가족기능, 나이, 결혼전교제기간, 자존감, 스트레스대처, 가족생활주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의 특성(Person) 중 나이와 자존감이 가족과정 특성(Process) 중 결혼적응도에 영향을 주고 가족기능을 통하여 심리적 복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자존감은 스트레스대처를 통하여 결혼적응도, 가족기능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 가정환경 특성(Context)인 월소득은 심리적 복지에 직접 영향을 주었으며, 결혼전교제기간은 직접 및 스트레스대처 및 가족기능을 거쳐 심리적 복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한편 결혼기간은 심리적 복지에 직접영향은 유의하지 않고 결혼적응도를 거쳐 심리적 복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Time)는 심리적 복지에 직접 영향은 유의하지 않고 가족과정 특성 중 결혼적응도와 가족기능을 통하여 심리적 복지에 간접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제시한 이론적 모형인 생태학적 가족복지 모형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심리적 복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틀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독립변인들이 심리적 복지의 유용한 모형이며 51%의 설명력이 있다.

가족과정변인 중 스트레스대처는 직접 영향은 유의하지 않고 결혼적응도와 가족기능을 통하여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가족과정(스트레스, 결혼적응도, 가족기능)은 가족구성원(나이, 자존감)과 심리적 복지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가족과정(결혼적응도, 가족기

능)이 가족생활주기와 심리적 복지 사이의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가족유형과 가족의 생활주기를 고려하여 가정의 물리적,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가족복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밝히고, 그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매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틀로 사용할 수 있는 생태학적 가족복지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생활주기별로 가족특성과 심리적 복지 예측변인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개인적 특성(Person), 환경적 특성(Context), 가족과정(Process), 그리고 가족생활주기(Time)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자존감, 가족특성(스트레스대처, 결혼적응도, 가족기능)과 심리적 복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긍정적 가족특성(결혼적응도, 스트레스대처)이 낮아지는 추세로 각 단계별로 적합한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가족생활주기별로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을 분석한 결과 신혼기, 유아를 둔 가족, 그리고 성인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는 결혼적응도가 가장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 가족생활주기가 부부중심 시기임으로 결혼적응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는 스트레스대처가 가장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 가족의 경우 중년기로 위로는 노부모의 부양과 청소년 자녀의 교육 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는 자녀가 유아기를 지나면서 결혼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7 years itch)로 결혼전교제기간이 가장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전교제기간은 배우자 선택의 여과과정 기간으로 충분한 교제기간을 거쳐 서로 맞지 않는 커플은 미리 걸러지기 때문이다. 노년기 가족의 경우는 나이가 가장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년기 가족의 경우는 연령층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신체적, 환경적 차이가 현저함으로 나이가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가족생활주기별 심리적 복지의 예측결과는 각 가족생활주기의 특징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족구성원 특성인 나이와 자존감은 직접영향은 유의하지 않고, 가족과정 특성인 스트레스대처, 결혼적응도, 혹은 가족기능을 거쳐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었다. 가정환경으로 소득은 심리적 복지에 직접

영향을 주고, 관계특성인 결혼전교제기간은 심리적 복지에 직접 혹은 스트레스대처 등 가족과정 변인을 통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결혼기간도 가족과정 변인인 결혼적응도를 거쳐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었다. 가족생활주기도 가족과정 변인인 결혼적응도 혹은 가족기능을 통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었다. 즉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적 특성이 가족과정을 거쳐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한 이론적 모형인 생태학적 가족복지 모형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심리적 복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틀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독립변인들이 심리적 복지의 유용한 모형이며 51%의 설명력이 있으며, 이는 모형에 포함된 변인 외에 다른 영향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설문조사에 있어 연구대상 가족의 남편 또는 아내가 응답하도록 하여 부부 단위의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향후 다양한 가족유형을 고려하고, 보다 전체적이고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변수들 간의 구체적인 관련성과 모형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가정의 심리적 복지를 생태학적 가족복지 모형을 적용하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가족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과 문제를 가진 가족을 위한 중재 및 치료 프로그램 및 가족복지 대책을 위한 방향 제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옥(1995). 가족 스트레스, 가족 체제유형, 가족복지와의 관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3), 101-112.
- 민혜경, 이경민(2000). Circumplex Model에 의한 유아가 있는 가족의 상호작용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5(1), 205-227.
- 박선영(1997). 가족기능 및 인성특성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경자(199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만족도: 한국부인들과 미국부인들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6(4), 271-272.
- 윤종희(2001). 가족복지의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9(8), 93-105.
- 정문자, 정현숙(1994).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대처전략과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5(2), 3-19.
- 정현숙, 정문자(1995). 청소년의 긴장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148-158.
- 전귀연(1996).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3), 137-156.
- 전귀연, 최보가(1995).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99-114.
- 전효정 (1996). 갈등해소 방법과 결혼 적응도: 애착유형, 비교수준과 동기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 57-82.
- 전효정(2003). 생태학적 가족복지 모형의 적용으로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심리적 복지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4(2), 107-117.
- 전효정, 이귀옥 (2000).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애착전이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애착전이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 185-198.
- 전효정, 이귀옥(2002).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9(2), 191-210.
- 최규련(1999).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 및 자녀요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2), 99-111.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Vol. 1). New York: Basic.
- Bronfenbrenner Life Course Center (1999). Coupled careers: Men & women, work & marriage, issue brief. *Cornell Employment and Family Carriers Institute*.
- Bronfenbrenner, U. (1976). "Who cares for American's Children?" In V. C. Vaughan and T. B. Brazelton (Eds.), *The Family - Can it be saved?* Chicago, IL: Year Book Medical Publisher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 T. Husen & T. N. Postlethwaite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2nd ed.). NY: Elsevier.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 In W. Damon & R.M. Lerner (Eds.). *The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NY: John Wiley & Sons.

- Collins, N., & Read, S.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Duvall, E. M.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MA: Lippincott.
- Germain, C. B., & Gitterman, A. (1987). Ecological perspective. In A. Minahan (Ed.-in-Chief),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 1, pp. 488-499). Silver Spring, MD: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11-524.
- Hill, R. (1958). Generic features of families under stress. *Social Casework, 49*, 139-150.
- Holman, T. B., & Burr, W. R. (1980). Beyond the Beyond: The growth of family theories in the 197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532-563.
- Jeon, H. (1992). Mechanisms of assortative marriage and marital adjustment In Arranged and Love-based Korean Marriages. Master Thesis.
- Kiecolt-Glaser, J. K., Bane, C., Glaser, R., & Malarkey, W. B. (2003). Love, marriage, and divorce: Newlyweds' stress hormones foreshadow relationship chang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1), 176-188.
- Kiecolt-Glaser, J. K., & Glaser, R. (2002). Depression and immune function: Central pathways to morbidity and mortalit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4), 873-886.
- Kirkpatrick, L., & Davis, K.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502-512.
- McCubbin, H., Olson, D., & Larson, A. (1982).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Scale: F-COPE. In D. Olson(Ed.). *Family inventories*.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cCubbin, H., & Patterson, G. (1986). *Adolescent stress, coping, and adaptation: A normative family perspective*. In G. Leigh & G. Peterson(Eds.). *Adolescents*. Cincinnati: South-Western Pub.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Bost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ye, F. I., & Berado, F. M. (1966). *Emerging conceptual frameworks in family analysis*. London: Collier-MacMillan.
- Olson, D., Porter, J., & Bell, R. (1982).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Scales II: FACES II. In D. Olson (Eds.). *Family Inventories*.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Olson, D. H., & DeFrain, J. (2003). *Marriage and families: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4th ed.). Mountain View, CA: Mayfield.
- Olson, D., Russel, C., & Sprenkle, D.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Stinnett, N., Chesser, B., & DeFrain, J. (eds.) (1979). *Building family strengths: Blueprints for action*.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tufflebeam (1983). Reflections on the Movement to Promote Effective Educational Evaluations through the use of professional standards. *Studies in Educational Evaluations, 9*(1), 119-124.
- Thomas, D. L., & Wilcox, J. E. (1987). The rise of family theory.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Y: Plenum Press.
- Verbrugge.(1979). Marital status and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2), 267-285.

(2007년 3월 31일 접수, 2007년 5월 11일 채택)